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극수필 02 | 불모지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시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지문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구세대와 변화에 적응하려는 신세대 간의 갈등을 분석하는 문제와, 무대 배경 및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특히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대립하는 쟁점을 파악하거나, **낡은 기와집과 고층 건물의 대비가 주제 의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는 문제, 그리고 <보기>의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작품의 비극성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



선생님, 제목인 '불모지'가 무슨 뜻인가요? 식물이 자라지 않는 땅이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작품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구나! 이 작품에서 '불모지'는 **1950년대 전후의 피폐한 한국 사회를 상징한다**. 최 노인으로 대변되는 구세대는 이미 힘을 잃고 사라져가는데, 경수나 경애 같은 새로운 세대는 아직 시대를 열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파멸하고 말지. 결국 어느 세대도 **희망을 꽃피우지 못하는 황폐한 현실을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에 비유한 거야**.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최 노인이 마지막에 정성껏 가꾼 화초밭을 짓밟고 뽑아헤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아끼던 것들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건가요?

그 장면은 최 노인의 **절망감과 자포자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란. 그는 나름대로 전통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살았지만, 주변의 높은 건물들 때문에 햇볕조차 들지 않아 화초가 자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지. 이는 자신의 노력(정성)이 현대화·도시화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야.





지문 중간에 ‘샤뽀보드’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왜 등장하는 건가요?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건가요?

‘샤뽀보드(서플보드)’는 당시 유행하던 실내 게임인데, 최 노인은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집을 전세로 내놓으려 했던 거야. **자식들은 아버지가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줄 알고 오해해서 갈등**이 생기지. 최 노인이 이 현대적인 게임 사업에 관심을 둔 건, 사실 그가 고수하던 전통 훈구 대여업이 신식 결혼식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기 때문이야. 전통을 고집하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설픈 근대적 수단을 찾는 구세대의 모습과 한계를 보여 주는 소재란다.



무대 배경에서 ‘높은 건물이 낮은 최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나요?

그럼! 무대 장치는 이 극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핵심 장치야. **낮은 최 노인의 집은 최 노인이 고수하는 전통적 가치를, 이를 압박하듯 둘러싼 최신식 고층 건물은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를 상징**해. 건물들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설정은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전통적인 삶이 소외되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니 꼭 기억해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극수필 02 | 불모지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경재: 어유.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최 노인의 낡은 집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 물을 길어 와야 함. '자식들로 하여금 '공동 수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에서 '옛것'을 고집하는 최 노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엔 난장판인걸! (하며 향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럴겠지 …….

경재: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수도 시설이 있는 신식 가옥)으로 옮기시다. 물만 길다가 내년 봄엔 낙제하게 생겼는걸요! 하루 이틀도 아니구…….]([]: 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최 노인의 집)

최 노인: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경재의 말에 큰 관심이 없음.)

경운: 애도 속없는 소리 잘하긴 경애 언니 닮았나 봐!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집에 대한 경운의 인식이 드러남.)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경재: **살기 싫으면 딴 데로 옮기면 될 걸**(오래된 집에 대한 애착이 없음.) 왜 이런 **게딱지 굴속**(집이 작고 허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집에 대한 경재의 인식이 드러남.)에서 산다는 거요?

최 노인: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때서?**(집에 대한 인식이 자식들과 다름. 최 노인은 자신의 집에 애착을 가진 인물임. '최 노인의 집에 대한 애착을 생각하면 최 노인은 힘을 잃어가는 구세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경재: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 노인: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집을 지키고자 하는 최 노인. 고지식한 최 노인의 모습이 드러남. '최 노인이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속담을 활용하여 상대의 의견을 비판함.)

경재: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절을 뒀에 쓰게요? 도깨비나 날걸…….

최 노인: (약간 핏대를 올리며)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 놀아!**(집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 노인)

경재: (**못마땅한 낫으로**)(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냄.)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최 노인: (획 돌아서며) 뭐, 뭐야?

경운: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상황을 중재하려 함.)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 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려구…….

경재: 또야? 나 시간 약속이 있는데…….

경운: (흘겨보며) 너 그러면 나와 약속한 일 국물도 없다!

경재: (짜증을 내며) 정식이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는걸……. 9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어머니: (설거지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바쁘면 어서 가려무나, 설거지가 끝나면 내가 길을 테니**…….(경재의 편을 들어주는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

경재: (**떨쩍 뛰며**) **엄마가 제일야! 우리 엄마가 넘버원이지! 그 대신 내일 아침엔 식전에 다섯 지게 길을게요, 어머니!**(연기를 위해 감독이 지시할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신나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밝게 연기해 주세요.'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웃으며) 그럼 물 향아리를 더 사 놔야겠구나……. (하며 수챗구멍에다 물을 버린다.)

경재: (손을 씻으며) 향아릿값은 우리의 **재무 장관인 작은누나**(경운이 집안의 경제를 꾸려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가 치르구, **핫하……**.(경재의 밝은 성격이 드러남.) (하며 아랫방으로 퇴장)

경운: **깍쟁이!** (빨래를 짜며) **어머니가 어떻게 물을 길으신다구 그러세요! 아직도 허리를 쓰시기가 거북하시다면서……**.(경운의 사려 깊은 모습이 드러남.)

방 안에서 휘파람 소리가 흘러온다.(청각적 요소를 통해 경재가 외출 준비를 하며 즐거워하는 상황을 제시함.)

어머니: **괜찮아……**.

최 노인: 참, 그 **고약**(험거나 굵은 데에 붙이는 끈끈한 약)은 다 붙였어?

어머니: 예. (허리를 가볍게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최 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 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오래전부터 다닌 약방을 신뢰함. 최 노인은 과거 지향적이며 전통적 가치관을 지녔음.) 내 청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야무진 힘) 있게 약을 써주거든!

어머니: **하기야 이 동네에서 예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 약방하구 우리 집뿐인걸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토박이들이 많이 떠나고 동네의 모습이 변함.)

최 노인: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서 산 지가 꼭 사십칠 년이고**(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음.) 그 강 약방이 사십 년이 되니까……. 그러고 보면 나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오십 년 동안에 이웃 얼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 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 모습)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을 쓰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주변의 신식 건물에 대한 불만. 최 노인이 '좌우의 높은 집'을 싫어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에서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지어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가려서'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고 못 하게 되었지!**(불만의 이유 - 주변 건물이 햇볕을 가림. '최 노인의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고 못 하게 되었지'라는 대사를 통해 당대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를 엿볼 수 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사는 근대화된 높은 건물들에 대한 최 노인의 불만을 나타내는 대사입니다. 자연 파괴나 환경 오염 문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최 노인이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한탄하는 대목에서, 근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군.'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최 노인과 달리 세상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근대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에 대한 최 노인의 적대 의식이 드러남. 오발탄의 내용을 <보기>로 제시해 비교하는 문제에서 '윗글과 「오발탄」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인물의 행동을 통해 당시 사회의 배려가 없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군.'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 이라고요?**(경수는 최 노인이 집을 판다고 오해하고 복덕방 영감이 집값을 헐값으로 제시했다고 생각함.)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구!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이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여보, 김 침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거간**(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린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어머니의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라는 대사를 통해 전쟁 체험으로 인해 몰락하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대사는 경수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전쟁 체험으로 인해 몰락하는 인간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영감님이 화내는 이유를 모르는 경수와 달리 ‘**생각 없이 말을**’ 한다고 사과하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당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상할 수 있음.)

복덕방: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김 침지! 글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그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복덕방 영감은 이백오십만 환은 후하게 매긴 전셋값이라고 생각함.)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응?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글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기분이 상해서 거래를 파기함.)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에잇. (하며 퇴장)

최 노인: 아, **김 침지! 김 선생!**(상대의 마음을 돌리고자 호칭을 고쳐 부름.)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 어머니: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경수는 최 노인이 혈값에 집을 파는 것으로 오해해 이를 막으려 함.)

이때 최 노인 새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이놈아!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최 노인은 집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님.)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러 복덕방은…….**(연기를 위해 감독이 지시할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투로 연기해주세요.’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최 노인: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뭣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 놈 취직 자본**(경수는 아직 취직하지 못한 상황임. 당대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 비정한 현실을 반영함. ‘**최 노인의 ‘네 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라는 대사를 통해 경수가 취업 위기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깁니까?

최 노인: 너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최 노인은 집을 세놓으려 함.)

경수: 예? 전세라구요? (어머니와 경수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최 노인은 이러한 경수의 행동이 자신이 집을 팔지 않고 세놓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여 갈등이 심화됨. ‘**이 작품에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 있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최 노인: 아니면 껌질이냐?

어머니: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글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뽀이뽀’이라든가…….

경운: ‘**샤뽀오드***’(서울 중심가에서 서구 문물의 유입과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말씀이에요?

최 노인: 그래, ‘샤뽀오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의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썄 다 된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뭐가 괜히야?

경운: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파실 줄만 알았어요.(최 노인의 의도를 오해했음.)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에 빛이 된단 말이야! 빛이 돼!(“불모지’의 모습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최 노인네 화초밭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뽑아 헤친다.)

어머니: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햇볕이 들지 않아 정성 들여 가꾼 화초도 잘 자라지 못함.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인 불모지와 같은 사회적 혼란상을 의미함. 구세대와 신세대 모두 자리 잡으며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 현실)

- 차범석, 「불모지(“불모지’의 모습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최 노인네 화초밭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고층 건물들 때문에 햇볕을 받지 못하는 최 노인의 가족들은 ‘불모’라는 주제를 구체화할 인물들로 볼 수 있겠어.’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샤벨보드: 19세기경 대서양 횡단 선박의 갑판에서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셔플보드(shuffleboard). 판 위에 원반들을 엮어 놓고 긴 막대를 이용하여 숫자판 쪽으로 밀면서 하는 게임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극수필 02 | 불모지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재: 어유.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장판인걸! (하며 향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럴겠지…….

경재: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기시다. 물만 긴다가 내년 봄엔 낙제하게 생겼는 걸요! 하루 이틀도 아니구…….

최 노인: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경운: 애도 속없는 소리 잘하긴 경애 언니 닮았나 봐!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경재: 살기 싫으면 판 데로 옮기면 될 걸 왜 이런 게딱지 굴속에서 산다는 거요?

최 노인: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때서?

경재: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 노인: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종이 나가는 법이야.

경재: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절을 뒀에 쓰게요? 도깨비나 날걸…….

최 노인: (약간 핏대를 올리며)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놈아!

경재: (못마땅한 낯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최 노인: (획 돌아서며) 뭐, 뭐야?

경운: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 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러구…….

경재: 또야? 나 시간 약속이 있는데…….

경운: (흘겨보며) 너 그러면 나와 약속한 일 국물도 없다!

경재: (짜증을 내며) 정식이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는걸……. 9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어머니: (설거지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바쁘면 어서 가려무나, 설거지가 끝나면 내가 길을 테니…….

경재: (펼쩍 뛰며) 엄마가 제일야! 우리 엄마가 넘 버원이지! 그 대신 내일 아침엔 식전에 다섯 지게 걸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웃으며) 그럼 물 향아리를 더 사 놔야겠구나……. (하며 수챗구멍에다 물을 버린다.)

경재: (손을 씻으며) 향아릿값은 우리의 재무 장관인 작은누나가 치르구, 핫하……. (하며 아랫방으로 퇴장)

경운: 깍쟁이! (빨래를 짜며) 어머니가 어떻게 물을 길으신다구 그러세요! 아직도 허리를 쓰시기가 거북하시다면…….

방 안에서 휘파람 소리가 흘러온다.

어머니: 괜찮아…….

최 노인: 참, 그 고약은 다 붙였어?

어머니: 예. (허리를 가볍게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최 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 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청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주거든!

어머니: 하기가 이 동리에서 예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 약방하구 우리 집뿐인걸요.

최 노인: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서 산 지가 꼭 사십칠 년이고 그 강 약방이 사십 년이 되니까……. 그리고 보면 나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오십 년 동안에 이웃 얼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서 걸 보면 세상 변해 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 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깃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뜻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 없는 놈 같으니까!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여보, 김 첨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린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잡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김 첨지! 글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복덕방: 그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응?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글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예잇. (하며 퇴장)

최 노인: 아, 김 첨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 어머니: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새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이놈아!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뭣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뭣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훑아, 네 놈 취직 자분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깁니까?

최 노인: 너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예? 전세라구요?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예요! 저는…….

최 노인: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

최 노인: 글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뽀뽀’이라든가…….

경운: ‘샤뽀뽀’말씀이예요?

최 노인: 그래, ‘샤뽀뽀’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의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썄 다 된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뭐가 괜이야?

경운: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파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

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난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별도 안 드는 집에 뭇이 된단 말이야! 뭇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뽑아 헤친다.)

어머니: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샤블뽀오드: 19세기경 대서양 횡단 선박의 갑판에서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셔플보드(shuffleboard). 판 위에 원반들을 얹어 놓고 긴 막대를 이용하여 숫자판 쪽으로 밀면서 하는 게임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성을 띠는 무대 소품을 매개로 인물과 관객이 소통하고 있다.
- ② 무대의 시간적 배경의 교체로 인해 인물이 처한 부정적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대화를 주도하던 인물의 퇴장으로 인해 인물 간 대화의 화제가 전환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집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인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 ⑤ 지시문에 의한 인물의 행동으로 인해 그 행동을 수행하는 인물의 성격이 희화화되고 있다.

고난도 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보기>

이 작품은 6·25 전쟁 이후 혼란기에 서울 중심부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통해 당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근대화 와 도시화로 인해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가운데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이 등장하며, 제각기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신세대들이 이와 대립각을 세운다. 그러나 신세대들 역시 방황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불모지'라는 제목이 보여 주듯 당대의 현실이 그만큼 암담했기 때문이다.

- ① 복덕방 영감에게 맞서는 인물로 제시된 경수는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않으며 방황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군.
- ② 최 노인이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라고 말하는 것에서,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경수가 취업하지 못한 모습은 전후의 암담한 현실에 놓인 신세대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최 노인이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한탄하는 대목에서, 근대화 와 인해 기존의 전통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 상황이 드러나는군.
- ⑤ '샤블뽀오드'는 신세대 와 구세대가 대립하는 원인으로 방황하는 신세대의 모습과 당대 근대화 와 인해 기존의 질서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군.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도구를 사용하여 인물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대사를 통해 인물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극 중 시간의 흐름을 전환하여 과거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 ⑤ 무대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공간이 변화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 <보기>를 고려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모지」는 근대화 되어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남아 있는 구식 한옥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인물 간의 가치관의 대립을 중심으로 갈등을 형성하고 있다. 즉, 도시화·현대화에 따른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자식들과 옛것을 고집하는 노인 사이의 대립이 주요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구세대는 이미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새로운 세대는 아직 새로운 시대를 열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좌절하고 마는 1950년대의 현실을 이 작품의 제목처럼 ‘불모지’ 즉,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① 자식들로 하여금 ‘공동 수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에서 ‘옛것’을 고집하는 최 노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아.
- ② ‘불모지’의 모습은 햇빛을 보지 못하는 최 노인네 화초밭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
- ③ 이 작품에서는 ‘좌우의 높은 집’, ‘샤벨보오드’ 등을 통해 근대화·도시화된 모습을 제시하려 한 것 같아.
- ④ 이 작품은 구세대로 집을 지키려는 최 노인, 경수 등을 설정하고, 새로운 세대로 경운, 경재 등을 설정해서 주제 의식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아.
- ⑤ 이 작품에서 인물 간의 가치관 대립은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인물들과 옛것을 고집하는 인물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② 장면의 전환을 통해 각 인물의 내면이 부각되고 있다.
- ③ 인물들의 복장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6.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장소이다.
- ② 최 노인이 집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는 장소이다.
-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소이다.
- ④ 최 노인이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자책하는 장소이다.
- ⑤ 최 노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보여 주는 장소이다.

7. 윗글의 최 노인이 ‘좌우의 높은 집’을 싫어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람들이 돈을 번 것과 달리 본인은 돈을 벌지 못해서
- ② 변해 가는 시대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 ③ 땅에서 풀이 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 ④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지어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가려서
- ⑤ 옛날과 달라진 집의 처지가 본인의 처지 같아 마음이 아파서

8. <보기>는 수업 시간에 윗글에 대해 선생님이 보충 설명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보기>

선생님: 이 작품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주제를 구체화시켜 주고 있어. 첫째는 작품의 배경인데, 근대화되어 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남아 있는 구식 한옥이 그것이지. 둘째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이야.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자식들과 옛것을 고집하는 최 노인 사이에 성격적 대립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리고 이러한 외견상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가치관과 삶의 태도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지. 구시대와 이미 힘을 잃었고 새로운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이 시기는 '불모지'였던 셈이란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대사와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고, 그 갈등이 바로 현실 사회의 모순 때문에 야기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단다. 자, 그럼 서로의 의견을 말해 볼까?

- ① 명희: '불모지'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제목이었군.
- ② 성희: 이 작품에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 있어.
- ③ 정희: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으로 곤궁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눈물겨워.
- ④ 은희: 결국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인물과 현실 간의 갈등이야.
- ⑤ 인희: 이 작품에서 최 노인의 '집'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겠어.

9. 다음 중,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대사의 역할은?

- ① 등장인물의 행동을 지시한다.
- ② 등장인물의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
- ③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낸다.
- ④ 극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다.

1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1950년대 후반의 희곡 작가들은 전쟁 체험으로 야기된 취업 위기 등 당대 사회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차범석은 「불모지」를 통해 서구화 및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발생한 인간 소외 현상과 전통적 가치의 쇠퇴,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하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 ① 최 노인의 '네 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라는 대사를 통해 경수가 취업 위기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어머니의 '근 오십 년 동안 이웃 얼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면'이라는 대사에서도 당대 사회에 만연한 인간 소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최 노인의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라는 대사를 통해 당대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를 엿볼 수 있다.
- ④ 경수의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 서나 하시오'라는 대사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 발생한 인간 소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어머니의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라는 대사를 통해 전쟁 체험으로 인해 몰락하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11. <보기>에 비추어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1957년 「불모지(不毛地)」라는 부정적 시각과 인식을 드러내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나, 1975년 작가는 「태양을 향하여」라는 이름으로 개작 및 개명을 하여 발표하였다. 내용상 원작과의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제목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평론가들은 작가의 현실관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어두운 현실에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개작과 개명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다.

- ① 내용상 「불모지(不毛地)」라는 제목은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 ② 「태양을 향하여」는 시대적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작품의 내용 역시 크게 변화됨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③ 「불모지(不毛地)」의 최 노인 가족이 처한 현실은 앞으로 밝은 내용으로 귀결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태양을 향하여」는 앞으로 나아가는 최 노인 가족의 노력이 반영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 ⑤ 제목으로 보아 「불모지(不毛地)」의 내용은 최 노인 가족이 겪는 갈등과 고난이 중심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집에 대한 최 노인과 자식들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제시되고 있다.

- ① 상징성을 띠는 무대 소품과 그로 인한 관객과의 소통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무대의 시간적 배경의 교체는 제시되지 않았다.
- ③ 대화에 참여하던 '경재'가 퇴장한 부분은 있지만 이로 인해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지시문으로 인물의 행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인물의 성격이 희화화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①, ⑤

- ① 복덕방 영감과 경수가 갈등한 것은 경수가 자신의 오해로 인해 예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수가 방황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물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샤벨보오드'는 당시 근대화, 서구화된 사회 현실을 보여 주는 장치이다. 해당 작품에서 신세대와 구세대가 대립하는 원인이 아니며 방황하는 신세대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② 최 노인은 자신의 오래된 집에 애착을 가지고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라며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 이는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려는 구세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 ③ '네 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라는 최 노인의 말에서 경수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암담한 현실에 놓인 신세대의 모습과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
- ④ 예전에는 좌우에 높은 건물이 없었지만 현재는 좌우에 높은 건물로 인해 햇볕을 보지 못하는 것에서 근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의 모습이 해체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②

최 노인과 자식들의 대화, 복덕방 영감과 경수의 대화에서 대사를 통해 인물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소도구를 사용하여 인물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③ 인물의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극 중 과거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최 노인이 아내와 대화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부분이 제시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⑤ 무대의 신속한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4. 정답 ④

이 작품에서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경수는 신세대에 해당한다.

- ① 신식 수도가 아닌 집에서 자식들이 공동 수도를 이용하게 하는 최 노인의 모습과 도시의 한복판에 남아있는 구식 한옥을 고집하는 최 노인의 모습에서 '옛것'을 고집하는 최 노인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② '식물이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라는 뜻의 불모지는 햇볕이 보이지 않아 식물이 자라기 힘든 최 노인네 화초밭의 모습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 ③ '좌우의 높은 집'은 근대화 되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샤벨보오드'는 당대 서구화, 현대화된 모습을 제시한다.
- ⑤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자식들과 옛것을 고집하는 최 노인의 갈등이 나타난다.

5. 정답 ⑤

집에 대한 자식들과 최 노인의 대화에서 최 노인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과 경재가 가지고 있는 근대적 가치관의 충돌이 드러난다.

- ①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어유희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② 집을 둘러싼 각 인물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복장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경재'의 퇴장이 드러나지만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지는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⑤

최 노인의 가족도 좌우의 높은 집들로 인해 햇볕 구

경을 못 하는데 화초밭 또한 햇빛이 들지 않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최 노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 ① 가족들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② 분노로 인해 화초밭을 밟는 장면은 있지만 화초밭을 포기하여 집을 지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화초밭을 밟은 최 노인의 모습과 말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시되었으나 화초밭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최 노인이 화초밭을 밟는 것에서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원통함이 주된 정서이다.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자책하는 모습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④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를 통해 ‘좌우의 높은 집’들은 주위를 배려하지 않고 지어서 최 노인의 집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가리고, 이 때문에 최 노인이 ‘좌우의 높은 집’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 [매력적인 오답] ‘제깃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를 통해 사람들이 돈을 번 것을 알 수 있으나 본인이 돈을 벌지 못해서 ‘좌우의 높은 집’을 싫어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좌우의 높은 집’은 근대적 건축물인데 이를 싫어하는 것을 통해 변해 가는 시대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 ③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를 통해 땅에서 풀이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풀도 안 나는 세상을 만들어서 싫어함을 알 수 있다.
- ⑤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를 통해 옛날과 달라진 집의 처지를 알 수 있지만 본인의 처지 같아서 마음 아파하는 최 노인의 모습은 윗글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정답] ③

<보기>에 드러난 선생님의 언급과 작품에 드러난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볼 때, 이 작품에는 ‘가족 간

의 사랑으로 곤궁한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보기>의 ‘1950년대의 이 시기는 ‘불모지’였던 셈’을 통해 ‘불모지’는 시대적 배경인 1950년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좌우 고층 건물에 대해 불만을 말하며 집을 떠나지 않고자 하는 최 노인과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경재의 대화가 드러나는데 이는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④ <보기>의 ‘갈등이 바로 현실 사회의 모순 때문이야기’를 통해 인물과 현실 간의 갈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 ⑤ 최 노인의 ‘집’은 근대화되어 가는 도시의 한복판에 남아 있는 구식 한옥으로 근대적이지 않은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9. [정답] ①

인물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은 지시문으로, 대사는 인물의 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② 윗글에서 최 노인과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주위의 고층 건물 때문에 햇볕을 못 받고 사는 최 노인의 상황이 드러나므로 대사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③ 최 노인의 대사를 통해 고지식한 최 노인의 성격을 알 수 있으므로 대사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④ 윗글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극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최 노인과 자식들의 대화나, 경수와 복덕방 영감님의 대화에서 대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0. [정답] ①

최 노인의 대사를 통해 경수가 취업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취업 위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당대 사회의 불안과 위기 의식을 인물의 상황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② 이는 변화한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당대 사회에 만연한 인간 소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③ 이는 고층 건물로 인해 최 노인의 집이 햇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매력적인 오답]** 경수의 대사는 오해로 인해 복덕방 영감에게 예의 없이 말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인간 소외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⑤ 어머니의 대사는 경수의 예의 없는 모습을 감싸기 위한 것으로 전쟁 체험으로 인해 몰락하는 인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⑤

「불모지」에는 작가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현실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불모지」에는 최 노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갈등과 고난의 내용이 이어질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① 「불모지」라는 제목은 최 노인의 가족이 겪을 ‘어두운 현실’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매력적인 오답]** ‘내용상 원작과의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을 통해 작품의 내용은 변화를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불모지」는 작가의 부정적 시각과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최 노인 가족이 처한 현실이 밝은 내용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내용은 원작과의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작가의 현실관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최 노인 가족의 노력이 반영된 것인지는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